

##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몽골제국 대칸과 티베트 불교 이야기

### 강사 소개



강사: **최소영**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譯註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티베트와 몽골제국의 관계, 역대 달라이 라마와 몽골, 그리고 명조, 청조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에서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티베트 사료의 한국 관련 기록 고찰」, 「라마의 선물: 티베트 직물 툽(Phrug, 氍毹) 연구」 등이 있다.

### 강의 요약

1206년 테무진이 칭기스 칸이라는 이름으로 초원의 패자가 되어 중앙유라시아를 장악해 간 이후 마침내 손자 쿠빌라이가 1276년 남송까지 손에 넣으면서 몽골제국은 명실 공히 역사상 최대의 육상 제국이 되었다. 방대한 제국 각지에서 거두어진 재화가 제국의 수도로 모여들었고 이들 도시와 그 근방은 온갖 물품 뿐 아니라 기술자와 예술가, 상인들 그리고 각종 종교 시설로 넘쳐났다. 이탈리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에 대해 “우리 최초의 조상인 아담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나타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백성과 지역과 재화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이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5대 대칸 쿠빌라이가 티베트 불교를 깊이 숭상하기 시작하면서 비단, 진주를 비롯한 몽골 황실의 대량의 재화가 티베트로 흘러들어갔다. 그 “보시”의 양은 대단했는데 당시의 한 학자는 “천하의 경비를 셋으로 나누면 승려가 그 중 둘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였다. 티베트 승려들은 이 보시를 받아 티베트 불교 승단을 유지하며 사원을 건설하고, 또한 몽골 대칸과 황실을 위해 기도했다. 본 강연은 제국 전체가 실�크로드였다고 할 만큼 인적·물적 자원과 사상, 종교의 교류가 넘쳐났던 몽골제국 시대에 대칸과 티베트 불교 사이에서 이루어진 물자와 신앙의 이동을 실제 티베트 사료의 번역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볼 것이다.